

전남개발공사 사장 전승현씨 내정

제5대 전남개발공사 사장에 전승현(60)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이 내정됐다.

전남도는 27일 "전남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내부 절차를 거쳐 1순위로 추천한 전 처장을 전남개발공사 차기 사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전남개발공사 임원추천위는 앞서 지난 6월2~18일 전국 공모를 통해 응시자 7명을 접수받은 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전 처장과 한국토지

주택공사(LH) 간부 출신 등 2명을 박준영 전남지사에게 복수추천했다.

도는 현재 개발공사가 동부권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규모로 추진 중인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장흥식품바이오산단, 강진환경산단 조성을 성공리에 추진해 가고, 도 정책과 부합해 선제적 대응전략의 경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판단에서 전 처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신임 사장은 신원조회 등을 거쳐 7월초 취임하게 되며, 임명일로부터 3년간 사장직을 수행한 뒤 성과에 따라 1년 단

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전 내정자는 영광 출신으로 전남도 도로교통과장, 지역계획과장, 건설방재국장을 지낸 다음 지난해 1월 도 체육회로 옮겼다.

/정근산 기자

전남일보

전남개발공사 신임 사장에 전승현 도체육회 사무처장

제5대 전남개발공사 사장에 전승현(60·사진)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이 내정됐다.

전남도는 27일 "전남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내부 절차를 거쳐 1순위로 추천한 전 처장을 전남개발공사 차기 사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전남개발공사 임원추천위는 앞서 지난 6월2~18일 전국 공모를 통해 응시자 7명을 접수받은 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전 처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 출신 등 2



천했다.

신임 사장은 신원조회 등을 거쳐 7월초 취임하게 되며, 임명일로부터 3년간 사장직을

수행한 뒤 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전 내정자는 영광 출신으로, 1973년 함평군에서 토목직 공무원으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뒤 광양시 향만도시국장, 전남도 도로교통과장, 지역계획과장, 건설방재국장을 지낸 다음 지난해 1월 도 체육회로 옮겼다.

김성수 기자 sskim1@nlibo.com

전남개발공사 사장에 전승현씨 내정



전남개발공사 5대 사장에 전승현(60·사진)씨가 내정됐다.

전남도는 27일 "전남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난 2~18일 전국 공모를 통해 지원자 7명을 접수 받아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후보를 2명으로 압축, 박준영 전남지사가 1순위 후보인 전승현씨를 신임 사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전 내정자는 "전 내정자는 전남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을 선제적 대응전략으로 추진, 경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j2k@kdaily.com

광주일보

전남개발공사 5대 사장에 전승현 전 도건설방재국장

전남개발공사 5대 사장에 전승현 전 전남도건설방재국장이 내정됐다. 전 내정자는 지난해 1월부터 직전까지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전남도는 27일 "전 내정자는 개발공사의 각종 사업을 선제적 대응 전략으로 추진하고 경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 내정자는 1973년 함평군에서 토목직으로 공직에 입문한 후 광양시 향만도시국장, 전남도 도로교통과장, 건설방재국장과 도 체육회 사무처장을 거쳤다.

전 내정자는 신원조회 등을 거쳐 다음달 초에 임명되며 임기는 3년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남도일보

전남개발공사 사장에 전승현씨 내정

이사회 면접 통과...신원 조회 후 내달 취임

제5대 전남개발공사 사장에 전승현(60·사진)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이 내정됐다.

전남도는 27일 "전남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내부 절차를 거쳐 1순위로 추천한 전 처장을 전남개발공사 차기 사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전남개발공사 임원추천위는 앞서 지난 18일까지 전국 공모를 통해 응시자 7명을 접수받은 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전 처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 출신 등 2명을 박준영 전남도지사에게 복수추천했다.

신임 사장은 신원조회 등을 거쳐 7월초 취임하며, 임명일로부터 3년간 사장직을 수행한 뒤 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전 내정자는 영광 출신으로, 1973

년 함평군에서 토목직 공무원으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뒤 광양시 향만도시국장, 전남도 도로교통과장, 지역계획과장, 건설방재국장을 지낸 뒤 지난해 1월 도 체육회로 옮겼다.

전남개발공사는 2004년 전남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자본금 4천814억원, 자산 총액 1조829억원으로 남악신도시, 빛가람혁신도시, 경도 해양관광단지 등 모두 22개 사업(총사업비 2조4천억원)에 참여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 임원추천위는 앞서 지난 6월2~18일 전국 공모를 통해 응시자 7명을 접수한 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전 처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 출신 등 2명을 박준영 전남도지사에게 복수추천했다.

도는 현재 개발공사가 동부권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규모로 추진 중인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장흥식품바이오산단, 강진환경산단 조성을 성공리에 추진해 가고, 도 정책과 부합해 선제적 대응전략의 경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판단에서 전 처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신임 사장은 7월초 취임한다.

전 내정자는 영광 출신으로, 1973년 함평군에서 토목직 공무원으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뒤 광양시 향만도시국장, 전남도 도로교통과장, 지역계획과장, 건설방재국장을 지낸 다음 지난해 1월 도 체육회로 옮겼다.

양동민 기자 yang00@namdonews.com

광남일보

전남개발공사 사장에 전승현씨 내정



제5대 전남개발공사 사장에 전승현(60)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이 내정됐다.

전남도는 27일 전남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내부 절차를 거쳐 1순위로 추천한 전 처장을 전남개발공사 차기 사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전남개발공사 임원추천위는 앞서 지난 6월2~18일 전국 공모를 통해 응시자 7명을 접수한 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전 처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 출신 등 2명을 박준영 전남도지사에게 복수추천했다.

도는 현재 개발공사가 동부권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규모로 추진 중인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장흥식품바이오산단, 강진환경산단 조성을 성공리에 추진해 가고, 도 정책과 부합해 선제적 대응전략의 경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판단에서 전 처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신임 사장은 7월초 취임한다.

전 내정자는 영광 출신으로, 1973년 함평군에서 토목직 공무원으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뒤 광양시 향만도시국장, 전남도 도로교통과장, 지역계획과장, 건설방재국장을 지낸 다음 지난해 1월 도 체육회로 옮겼다.

양동민 기자 yang00@namdonews.com

광남일보

전남도체육회 운영개선평가회 개최

전남도체육회는 27일 오전 11시 무안스포츠파크 회의실에서 전남도체육대회 차기 개최지인 무안군에서 전승현 사무처장 주재로 시·군체육회 및 경기단체와 유관기관인 전남도청, 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남체전 운영개선 평가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평가회에서는 선수 저변이 확보된 농구, 당구 등 종목 신설하고 육상과 수영 등 기초종목 활성화를 위한 중등부 시범 운영, 일부 종목의 경기방식 변경, 선수단 숙박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전승현 사무처장은 "대회 운영 전반에 대한 운영 개선을 통해 전남체전을 활성화 함으로써 도민의 화합과 전남체육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키자"고 강조했다.

전남일보 기자

전남도체육회, 전남체전 운영개선 평가

종목 신설·기초종목 중등부 시범 운영 논의



전남도체육회(회장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27일에서 제52회 전남체전 운영개선평가회를 개최

전승현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평가회에는 시·군체육회 및 경기단체와 유관기관인 전남도청, 전남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전남도체육회는 운영개선평가회를 통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발전적 운영 방안을 마련해 차기 대회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으로 대회 운영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과 체육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수 저변이 확보된 농구, 당구 등 종목을 신설하고 육상, 수영 등 기초종목 활성화를 위한 중등부 시범 운영, 일부종목의 경기방식 변경, 시·군선수단의 숙박과 관련한 개선 대책 마련 등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전승현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은 "대회 운영 전반에 대한 운영 개선을 통해 앞으로 더욱 전남체전을 활성화 함으로써 도민의 화합과 전남체육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자"고 강조했다.

시광하 기자 shk@namdonews.com